

## 학령기 아동의 대응 유형에 관한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정 연\* · 조 결 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는 신체적 성장 뿐 아니라 지적 능력의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환경의 변화 경험과 더불어 새로운 스트레스와 마주치게 되며(Ryan, 1989),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현대 한국사회의 과열된 교육열과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학교 사회가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 역시 적응상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손, 1996).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대응하는 유형은 아동기에 발달하게 되며, 아동기에도 다양한 대응 방법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Ryan, 1989).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다(손, 1996 ; 김문상, 1992 ; Garnezy & Rutter, 1983 ; Lazarus & Launier, 1978). 그러므로 아동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양식에 관한 지식이 아동을 대하는 건강 전문가에게 필요한데, 특히 간호사는 아동이 적응적인 또는 부적응적 노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신, 1997 ; Walker, Wells, Heiney, Hymobich, & Weekes, 1993). 우리나라에서 아동기의 대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학 관련 전공 영역에서 주로 행하여

져 왔으며, 간호학 영역에서는 신(1997)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대응 전략이 정적 상관에 있으며, 대응 전략이 건강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동이 어떤 대응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지 또는 대응의 정도만을 밝히고 있어, 아동의 주관적인 경험으로서의 대응 유형을 분류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대응 개념의 측정 도구가 대부분 외국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도구의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아동의 대응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나 아동에게 심층 면담을 적용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런 연구를 건강한 아동들에게 양적 연구로 적용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원 아동이나 만성 환아를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대상 아동의 확보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아동의 대응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하기에는 Q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학 분야에서 아동에게 Q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Q방법론적 접근의 과정 중 Q표본 분류(Q-sorting)인 강제 정상 분포(forced normal distribution)를 학령기 아동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규명하며, 그들의 대응 경험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류하여 학령기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령기 아동의 Q표본 분류(Q-sorting)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한다.
- 2)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한 대응 경험의 주관성을 유형화한다.
- 3)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한 대응 경험의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고 기술한다.

## II. 문헌 고찰

### 1. 학령기 아동의 대응

대응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Silver & Wortman(1980)은 대응을 직접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행하는 모든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Miller(1979)는 대응을 위협적인 상황을 중화시킴으로써 생리적인 반응을 저하시키는 효과적인 학습된 반응으로 보았다. 대응은 적응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으로 여겨져 왔으나 Lazarus & Folkman(1984)은 대응의 개념을 결과와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 중심적 관점에서 대응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된 개인과 환경 사이의 요구의 해결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Lazarus, Averil & Opton, 1974).

대응 양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 대응 방법을 의미하는 반면 대응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의 과정에서 취해지는 인지적이거나 행동적인 활동을 의미한다(Compas, 1987). 그러나 어떤 대응 과정이 적응을 증진시키고 다른 것은 부적응이나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며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신, 1996).

학령기는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정보를 조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학령기 아동은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은 있으나 논리적 사고 능력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고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8-10세 이후에 가능하다고 볼 때(Spivack, Platt & Shure, 1976), 아동기에서 문제 해결 중심 대응 행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 1996). Ryan(1989)은 103명의 학령기 아동의 대응 전략을 조

사하였을 때 아동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며 스트레스원과 대응 자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시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대응 전략과 빈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아동일수록 좀 더 인지적 대응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신체적 대응 행위를 많이 하는 반면 여아는 사회적 지지를 구하거나 정서 중심 대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pas, Malcarne & Fondacaro(1988)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적,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과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문제 지향적 대응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정서 지향적 대응 방식을 사용하며,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는 정서 지향적 대응 방식의 수가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Band와 Weisz(1988)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6가지 상황 즉, 이별 상황, 병원 상황, 권위에 대한 갈등, 친구 상황, 학업 상황, 신체 상황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1차 대응, 2차 대응, 무대응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차 대응은 직접적인 문제 해결, 문제 중심 울음, 문제 중심 공격, 문제 중심 회피의 4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2차 대응은 5가지 측면으로 1) 사회적, 정신적 지지, 2) 정서 상태의 울음, 3) 정서 중심 공격, 4) 인지적 회피, 5) 순수인지를 포함한다. 무대응은 단념하거나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러한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념에 관해서 어린 시절부터 배우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 학업 상황에서는 1차 대응을 보였고, 병원 상황에서는 2차 대응을 보였다. 또한 대응 방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차 대응이 감소하고 2차 대응이 증가하였으며, 대체로 1차 대응이 많았다.

Band 등(1988)의 대응 방식 분류 모델인 1차 대응, 2차 대응은 Lazarus 등(1984)이 분류한 문제 지향적 대응과 정서 지향적 대응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문제 지향적 대응은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직접 변화시키든지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즉 문제 해결이나 개인과 환경간의 갈등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대처 방식이다. 이것은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해결하려는 행동인 1차 대응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 지향적 대응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아나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응 방식이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2차 대응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정, 1995; 진, 1996).

학령기 아동의 대응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진(1990)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응 방식을 연구한 결과 학업 상황과 권위에 대한 갈등 상황에서는 1차 대처가 매우 적었으며, 대응 방식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무대응의 반응을 주로 나타내었는데 특히, 권위에 대한 갈등 상황과 신체 상황에서 무대응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또한 남자는 문제 중심적인 1차 대처를 주로 나타내었고, 여자는 정서 중심적인 2차 대응을 주로 나타내었다.

이(1990)는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통제가능성의 정도와 사용하는 대응 방식의 수가 스트레스 상황 및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초등 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제가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대응 방식의 수는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남을 밝혔다.

아동의 A/B유형 행동 양식 및 심리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규명한 이(1996)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에서는 A유형이나 B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성취 요인 상에서 구분된 A유형 아동들이 B유형 아동들보다 더 문제 중심적인 대응 방식을 취하였으며, 학업성적 또한 더 우수하였음을 밝혔다.

정(1995)은 초등 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Eysenck-이현수의 성격 차원 검사와 Band-Weisz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응 방식에 관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응 방식이 강인성의 경우 친구, 학업 상황에서, 외향성인 경우 이별, 친구, 상황에서, 허위성의 경우 병원 상황에서 각각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 때 아동이 사용한 대응 방식은 대체적으로 정서 중심적인 2차 대응 방식이었다.

우리 나라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응전략에 관한 신(1996)의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학령기 아동은 Sarré & Ryan-Wanger(1991)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나라 아동의 대응 정도가 다소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 나라 학령기 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응 전략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다”, “그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등의 지적인 대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yan(1989)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성별에 따른 대응 전략의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별로는 대응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4학년보다는 5, 6학년이 대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대응은 스트레스, 기질 불안, 건강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 Ⅲ. 연구 방법

아동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발달 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대상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을 제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수 확보의 어려움과 심층 면담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Q방법론 접근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간의 주관성에 기초한 스트레스와 대응(coping) 개념은 간호학 연구에 있어서 Q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한 연구 주제로 제시되어(Dennis, 1986), Q방법론은 학령기 아동의 대처 유형을 알아보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사료된다.

#### 1. Q-표본(Q-sample)의 표집 방법

Q-표본의 표집 방법은 구조화된 것과 비구조화된 것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유형(type)을 찾아내고 설명하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구조화된 표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Q-모집단(Q-population)을 입수하기 위해서 초등 학교 4,5,6학년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개방적 질문지에 답하게 하여 얻은 127개의 진술문과 문헌 연구를 통하여 26개의 진술문을 합쳐 총 153개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모집단을 놓고 진술문의 유목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 번 분류하여 읽으면서 분류하였으며 분류 결과 33개의 진술문을 선택하였고, 이 과정이 끝난 뒤 Q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분류 결과의 의뢰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31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표 1 참조). 또한 이 31개의 진술문을 아동의 Q표본

분류(Q-sorting)인 강제 정상 분포(forced normal distribution)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점척도의 사용 빈도와 효율성 정도를 묻는 질문지로도 작성하였다.

〈표 1〉 Q 진술문(31개)

Q 1	텔레비전을 본다.
Q 2	음악을 듣는다.
Q 3	책을 읽는다.
Q 4	글을 쓴다.
Q 5	그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Q 6	혼자서 상상을 한다.
Q 7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Q 8	운동을 한다.
Q 9	먹거나 마신다.
Q10	그 일에 대해 잊으려 한다.
Q11	게임을 한다.
Q12	노래를 부른다.
Q13	춤을 춘다.
Q14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Q15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진실을 말한다.
Q16	기도를 한다.
Q17	혼자 있는다.
Q18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한다.
Q19	크게 화를 낸다.
Q20	밖에 나가 돌아다닌다.
Q21	슬퍼하거나 운다.
Q22	잠(낮잠 포함)을 잔다.
Q23	누군가와 싸운다.
Q24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 부딪혀 행동한다.
Q25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다.
Q26	손톱을 물어뜯거나 내 머리를 때린다.
Q27	그림을 그린다.
Q28	애완동물이나 인형을 껴안는다.
Q29	물건을 치거나 던지거나 부서뜨린다.
Q30	집안 일을 한다.
Q31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2. P-표본(P-sample)의 표집 방법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수가 100명 이상을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40±20명 정도가 일반적이다(김홍규, 1992). 본 연구의 P-표본은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1개 초등학교 76명의 3,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2〉와 같다.

〈표 2〉 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 (N=76)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학년	3학년	19	(25.0)
	4학년	20	(26.3)
	5학년	18	(23.7)
	6학년	19	(25.0)
성별	남	38	(50.0)
	여	38	(50.0)
나이(세)	8	4	( 5.3)
	9	23	(30.3)
	10	17	(22.4)
	11	19	(25.0)
	12	13	(17.1)

3. Q-표본 분류 과정(Q-sorting) 및 방법

먼저 아동의 대응 방식으로 추출된 31개의 진술문을 사용 빈도와 효율성을 묻는 5점 척도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Q-표본 분류 과정(Q-sorting)을 하게 하였다.

Q-항목(Q-item)은 응답자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물체(thing)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극 항목(stimulus item)이라고도 부르는데 카드 위에 인쇄된 진술문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Q-표본(Q-sample)으로 선정된 진술문을 카드 위에 31개의 인쇄함과 아울러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진술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 만화가에 의해 그려진 만화삽화를 첨가하였다(부록 1 참조).

Q-표본 분류 과정(Q-sorting)의 절차는 Q-표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 부정(-)으로 크게 3무더기로 가른 다음 긍정 진술문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5)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 부분에서 마무리하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부정 진술문들 중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을 -5에 두고 차츰 안쪽으로 분류하여 계속하여 중립 부분에서 끝내게 한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은 긍정, 중립, 부정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응 방법의 사용 빈도와 효율성과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긍정'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 '중립'은 '보통 정도 사용하고 도움도 보통인 방법', '부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바꾸어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와서 시행하게 하였다. 양극에 놓여진 두 개씩의 진술문(+5와 -5) 4개에 대하여는 Q-factor의 해석시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술문 하나 하나에 대하여 선택 이유를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응답 내용을 여백의 종이에 기록하였다.

####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P-표본으로 표집된 76여명의 자료를 컴퓨터에 자료 파일로 입력시킨 후 코딩은 배열 카드 등에 기록된 진술 항목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에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에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 화하였으며, 5점 척도로 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도 각 문항별로 부호화 하였다.

부호화된 자료는 대응유형별 분류를 위하여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요인 분석은 주인자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Q방법론적 접근으로 부호화된 자료와 질문지를 이용하여 부호화된 자료간의 항목별 일치를 규명하기 위하여 SPSS PC+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아동 간호 연구를 위하여 학령기 이상의 아동에게 Q방법론적인 접근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된 초점을 두어 시도한 것이므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대응 행동의 구별이나 대응 유형에 영향을 주는 다른 관련 변수들의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아동의 Q표본 분류의 신뢰성 검증

아동의 Q표본 분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출된 31개의 진술문을 5점 척도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Q표본 분류를 하게 하여 부호화한 점수를 각 문항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표 3>과 같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점수와 Q표본 분류에서 부

호화한 점수간에 2~3문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Q표본분류과정인 강제정상분포를 믿을만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학령기 아동에게 Q방법론적 접근의 적용가능성을 어느 정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문지로 측정된 사용빈도와 효율성간에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효율성이 좋을수록 사용빈도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표 3> Q진술문별 사용 빈도와 효율성과의 관계

문항 번호	사용 빈도		효 율 성		사용 빈도-효율성	
	r값	(p값)	r값	(p값)	r값	(p값)
1	.4855	(.000)*	.2946	(.005)*	.6111	(.000)*
2	.6375	(.000)*	.5782	(.000)*	.7693	(.000)*
3	.4742	(.000)*	.5497	(.000)*	.6085	(.000)*
4	.2577	(.012)*	.2388	(.019)*	.7752	(.000)*
5	.2027	(.045)*	.1991	(.042)*	.4157	(.000)*
6	.4422	(.000)*	.2747	(.042)*	.7788	(.000)*
7	.1788	(.061)	.2663	(.010)*	.6240	(.000)*
8	.6129	(.000)*	.4567	(.000)*	.7689	(.000)*
9	.3517	(.001)*	.2372	(.020)*	.7833	(.000)*
10	.3956	(.000)*	.3106	(.003)*	.7155	(.000)*
11	.6795	(.000)*	.4798	(.000)*	.7715	(.000)*
12	.5396	(.000)*	.5063	(.000)*	.7054	(.000)*
13	.4628	(.000)*	.3497	(.001)*	.8479	(.000)*
14	.3389	(.001)*	.2990	(.004)*	.6753	(.000)*
15	.4349	(.000)*	.3549	(.001)*	.6875	(.000)*
16	.6912	(.000)*	.6539	(.000)*	.8388	(.000)*
17	.5834	(.000)*	.3686	(.001)*	.6269	(.000)*
18	.5371	(.000)*	.4946	(.000)*	.8291	(.000)*
19	.3547	(.001)*	.2111	(.034)*	.6866	(.000)*
20	.4177	(.000)*	.2418	(.018)*	.6933	(.000)*
21	.4795	(.000)*	.4322	(.000)*	.6729	(.000)*
22	.4024	(.000)*	.4064	(.000)*	.8313	(.000)*
23	.1799	(.060)	.1289	(.134)	.6543	(.000)*
24	.1097	(.173)	.1758	(.064)	.7797	(.000)*
25	.3446	(.001)*	.3796	(.000)*	.8670	(.000)*
26	.5606	(.000)*	.4218	(.000)*	.7175	(.000)*
27	.5859	(.000)*	.5736	(.000)*	.8927	(.000)*
28	.5628	(.000)*	.5713	(.000)*	.9242	(.000)*
29	.5498	(.000)*	.5819	(.000)*	.8602	(.000)*
30	.4622	(.000)*	.5088	(.000)*	.8141	(.000)*
31	.4995	(.000)*	.4536	(.000)*	.8933	(.000)*

\*P<.05

2. 대응 경험에 관한 주관성 구조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을 조사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졌으며 이 4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3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이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연구 대상자의 구성은 <표 5>와 같으며, 제 1유형 35명, 제2유형 12명, 제3유형 22명, 제4유형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 가중치가 높은 아동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proto-

type) 혹은 이상적인(ideal) 아동으로 그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유형간의 상관관계

유형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0			
TYPE 2	.452	1.000		
TYPE 3	.511	.521	1.000	
TYPE 4	-.079	-.626	-.049	1.000

<표 5> 대응 경험의 유형별 특성과 인자 가중치

TYPE 1 (N=35)				TYPE 2 (N=12)				TYPE 3 (N=22)				TYPE 4 (N=7)			
ID	학년	성별	가중치	ID	학년	성별	가중치	ID	학년	성별	가중치	ID	학년	성별	가중치
1	3	남	.7639	2	3	여	.7624	11	3	여	.3847	12	3	남	.7859
3	3	여	.6341	5	3	여	.8556	14	3	여	.3482	17	3	남	.8729
4	3	남	1.0828	6	3	여	.4962	22	4	여	.5496	19	3	남	.6348
7	3	남	.4978	9	3	여	.2895	23	4	여	.3902	25	4	남	.6139
8	3	남	.8111	15	3	여	.6007	28	4	여	1.5170	41	5	여	.1283
10	3	여	.4043	16	3	남	.6938	33	4	여	.5057	53	5	여	.6173
13	3	남	.2057	31	4	여	1.0842	35	4	남	.7124	65	6	여	.2792
18	3	여	.4933	32	4	남	.6448	36	4	여	1.0979				
20	4	여	.5147	37	4	여	.8622	38	4	남	.2821				
21	4	남	.4159	63	6	여	.3341	39	6	여	.3845				
24	4	남	.6575	64	6	여	.5058	40	6	남	.3707				
26	4	여	.0298	76	6	여	.9688	42	5	여	.9371				
27	4	남	.5707					43	5	여	.7831				
29	4	남	1.1826					44	5	여	.8553				
30	4	남	.6414					45	5	남	1.1492				
34	4	남	1.0573					50	4	여	.6364				
46	5	남	1.0841					54	5	여	1.8289				
47	5	남	.5302					56	5	여	.4002				
48	5	남	.2791					59	5	여	.9573				
49	5	남	.6607					62	6	남	.3713				
51	5	남	.9863					68	6	여	.3863				
52	5	남	.7168					73	6	여	1.1506				
57	5	남	1.2442												
58	5	남	.7048												
60	5	여	.7429												
61	6	남	.9970												
66	6	남	.3748												
67	6	남	.1223												
69	6	남	.5482												
70	6	여	.6182												
71	6	남	1.0551												
72	6	여	.5771												
74	6	남	1.2534												
75	6	남	.5544												
77	6	남	.8970												

### 3. 대응 경험에 대한 유형별 특성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에 대한 각 유형의 결과 해석은 각 유형에 대한 31개의 진술문 중 강한 긍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 > +1)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 < -1)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자가중치가 1.00 이상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유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김홍규, 1992), 본 연구자도 각 유형의 전형적인 아동을 중심으로 Q-분류 과정 당시 관찰 및 양극단을 선택한 의견을 면담한 내용을 근거로 각 유형별 특성을 해석하였다.

#### 1) 제1유형(동적 행위 추구형)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에 관한 제1유형의 특성은 동적 행위 추구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주로 운동을 하거나 전자오락 게임을 하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대응이 두드러지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누군가와 싸우거나 물건을 치거나 던지거나 부서뜨리는 등의 부정적 대응 행동들은 선호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표 6 참조). '책을 읽는다'는 강한 긍정을 보이는 문항이기는 하나 타 유형과의 변별력이 높은 문항은 아니었다. 전체 연구 대상 아동 76명중 35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들이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남자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1유형은 학년별 특성에서 학년에 따라 치우치는 경향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1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아동을 중심으로 Q-분류 과정 당시의 관찰 및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74번 아동은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아동으로 6학년의 남자로 형제 없이 독자이고 부모의 교육 정도는 둘 다 대학 졸업 이상으로 중산층의 가족에 속해 있다. 이 아동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이유와 배경으로는 7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정신 수양을 위하여 검도를 하게 하였고, 수영은 거의 매일하고, 스케이트도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늘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천주교 신자로 그런 일은 나쁜 일이기 때문이고 간혹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분이 더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7번 아동은 이 유형에서 2번째로 인자 가중치가 높은 5학년 남자 아동으로 아주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를 가졌으며, 생활 수준은 중정도라고 생각하는 아동이었다. 운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진술한 이유는 평소에도 가만히 견디 못하고 뛰거나 나는 듯이 활부하며 다니고 아주 활동적이어서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아동 역시 누군가와 싸우거나 물건을 치거나 던지거나 부서뜨리는 것은 오히려 기분을 더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대응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동적 행위 추구형은 보통의 남자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없고,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무엇보다도 주로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제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통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 항목	표준점수 (Z-score)
8.	운동을 한다.	1.60
3.	책을 읽는다.	1.60
1.	텔레비전을 본다	1.24
11.	게임을 한다.	1.24
5.	그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1.20
19.	크게 화를 낸다.	-1.20
21.	슬퍼하거나 운다.	-1.24
13.	춤을 춘다.	-1.47
29.	물건을 치거나 던지거나 부서뜨린다.	-1.64
23.	누군가와 싸운다.	-1.77
31.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2.00

#### 2) 제2유형(지적 행위 추구형)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에 관한 제2유형의 특성은 지적 행위 추구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책을 읽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지적인 행위를 추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텔레비전을 본다는 항목은 비중이 높기는 하였지만 다른 유형과의 표준점수에서 변별력이 있는 항목은 아니었다.

이 유형은 전체 연구 대상 아동 76명중 12명으로 주로 여자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학년별 분포는 3학년이 6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저학년여

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응 유형이라고 여길 수 있다<표 5 참조>.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 2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31번 아동을 중심으로 Q-분류 과정 당시의 관찰 및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4학년의 여자 아동으로 형제 중에서는 첫째이고 매우 수줍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된 대응 행동인 책을 읽는 것은 책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며, 책을 읽음으로써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지하였던 일들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며, 책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이 많아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유형에 속하는 다른 아동들도 책을 읽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로는 그냥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책을 읽는 동안 기분 나쁜 일을 잊을 수 있고,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적 행위 추구형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지적 활동을 통하여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추구하고 그림으로써 지식을 쌓아 가는 이점도 추구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7>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 (Z-score)
3.	책을 읽는다.	1.97
1.	텔레비전을 본다	1.37
27.	그림을 그린다.	1.27
15.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진실을 말한다.	1.23
13.	춤을 춘다.	1.17
28.	애완동물이나 인형을 껴안는다.	1.07
18.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한다.	-1.19
19.	크게 화를 낸다.	-1.24
25.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다.	-1.42
29.	물건을 치거나 던지거나 부서뜨린다.	-1.53
23.	누군가와 싸운다.	-1.63
26.	손톱을 물어뜯거나 내 머리를 때린다.	-1.65

3) 제3유형(정서적 승화형)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에 관한 제3유형의 특성은 정서적 승화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주로 기도를 하거나 혼자 있거나 상상을 하는 등 정서 중심적인 행위를 통해 승화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형이다<표 8 참조>.

이 유형은 22명으로 제1유형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

지하고 있다. 제3유형의 성별 특성에서 남아보다는 여아의 수가 더 우세하고, 학년별 분포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아동이 더 많이 속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유형은 고학년 여자 아동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응 유형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3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아동을 중심으로 Q-분류 과정 당시의 관찰 및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4번 아동은 5학년 여자 아동으로 성격적으로 차분하고 얌전하며 종교는 기독교로 할머니와 같이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8번 아동은 4학년 여자 아동으로 아주 얌전하며 직장을 가진 편모 슬하에서 맏이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착실한 아동이었다. 이 아동도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45번 아동은 5학년의 남자 아동으로 3명의 형제 중 둘째로 자기 방에서 혼자 있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어 저절로 기분 나빴던 것이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아동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 하며, 주로 가족 구성원의 종교 영향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등 자신의 정서적인 측면을 다스림으로써 승화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 (Z-score)
16.	기도를 한다.	1.44
17.	혼자 있는다.	1.40
6.	혼자서 상상을 한다.	1.23
19.	크게 화를 낸다.	-1.06
24.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 부딪혀 행동한다.	-1.07
29.	물건을 치거나 던지거나 부서뜨린다.	-1.71
11.	게임을 한다.	-1.81
31.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1.88
23.	누군가와 싸운다.	-2.21

4) 제 4유형(자기 학대형)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에 관한 제4유형은 자기 학대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에서 다른 유형과 가장 현저한 표준점수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크게 화를 낸다'였으며 다음으로 표준점수의 차이를 많이 보인 문항은 '손톱을 물어뜯거나 내머리를 때린다'였다. 이 밖에도 이 유형에서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문항은 자기 자신에게 혼자 말을 하거나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있으려고하는 이완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향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에게 타격을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부정적 대응 경향을 보이며,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등의 긍정적 대응 행동은 잘 사용하지 않고 효율성도 느끼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9 참조).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은 7명으로 4개의 유형 중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년별이나 성별에 따른 구분이 뚜렷하지는 않았다(표5 참조).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4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17번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 중에서 인자 가중치가 높은 53번 아동은 대화하기를 꺼려하여 양극단의 문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매우 수줍어하며, 친구 관계도 적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표 9〉 제4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 (Z-score)
18.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한다.	1.80
19.	크게 화를 낸다.	1.57
14.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1.44
26.	손톱을 물어뜯거나 내머리를 때린다.	1.20
6.	혼자서 상상을 한다.	1.17
5.	그 일에 대해 꿈곰이 생각한다	1.13
17.	혼자 있다.	1.04
8.	운동을 한다.	-1.03
4.	글을 쓴다.	-1.08
16.	기도를 한다.	-1.09
7.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1.15
12.	노래를 부른다.	-1.40
13.	춤을 춘다.	-1.56
30.	집안일을 한다.	-1.67

따라서 이 유형의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며,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어 스트레스로 인지한 사

건들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하거나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이 없이 혼자 우울해 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을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들은 긍정적인 행동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하여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이며, 선행 연구들에서와 같이 연령과 성별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령기 아동들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남을 괴롭히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며, 간혹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부모나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어 스트레스가 더욱 더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nd와 Weisz(1988)의 연구나 Lazarus(1980)의 분류와 다른 다소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분류된 유형 중 제4유형인 자기학대형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거의 규명되지 않았으며, 부모와 함께 담임교사나 양호교사의 상담과 지도가 필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대응 유형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동의 가족적 분위기나 아동 자신의 성격에 따른 영향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에게 Q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Q-모집단을 입수할 때 학령기 아동은 인지 발달상 구체적 조작기로 현 사실에 대해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가설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측면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어떤 개념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이유나 그와 관련된 행동의 배경이나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Q표본 분류시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이해 수준이 낮으므로 분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고,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아동의 이해를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Q표본 분류시 양극단의 문항을 선택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위하

여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가급적 연구자가 직접 그 이유를 물어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문헌 고찰을 통하여 관련 요인으로 알려진 내용들을 고려하여 개방적 질문 하거나 다른 아동들이 진술한 내용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참고적으로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에게 Q방법론적 접근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개념으로 사료되는 대응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적 접근의 과정에서 아동의 Q표본 분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출된 진술문을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또 다시 Q분류 과정을 적용하여 점수화한 후 문항간의 일치성을 살펴본 결과 학령기 이상의 아동들에게도 그들의 주관적 경험을 규명하기 위하여 Q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남자 아동들의 진형적 유형으로는 제1유형인 동적 행위 추구형이 있었다. 여자 아동들의 대응 유형은 저학년의 경우에는 제2유형인 지적 행위 추구형, 고학년의 경우에는 제3유형인 정서적 승화형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유형인 제4유형은 부정적 성향을 보이는 유형으로 자기학대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성별과 학년의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선행 연구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대응 유형이었다.

이는 아동 간호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아동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특히, 질환에 이환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할 수 없거나 아동의 발달적 특성상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Q방법론적 접근이 유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제 언

1) 본 연구에서 규명하지 않았던 학령기 아동의 대응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아동의 성격 유형이나 학업성적 등의 제변수를 고려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 2)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응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방법으로 Q-표본을 선정하는 접근을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 3)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이 중요시되는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들의 대응 유형을 규명하여 아동의 임상 간호의 증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4)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을 이해하기 반복적인 Q방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 나라 학령기 아동의 대응 경험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5)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담임교사나 양호교사는 아동의 대응 유형을 사정하여 제 4 유형과 같은 부정적 대응 성향을 가진 아동들을 적응적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문상(1992). 성격 Type A·B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규(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서울대학교 간호대학), 6(1), 1-11.
- 손원혜(1996). 성취동기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선(1996).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6(4), 808-819.
- 이소은(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96). 아동의 A/B유형 행동 양식 및 심리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남순(1995). 성격차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 연, 이군자, 백승남, 조결자(1996). 만성 환아를 가진 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2(1), 69-92.
- 진은경(1990).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Band, E. B.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 bad:Children's perspectives on

-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Compas B.E.(1987). Coping with stress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mpas, B.E., Malcarne V.L. ,& Fondacaro, K.L.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405–411.
- Dennis Karen E. (1986). Q methodology: relevance and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Research, 8(Apr.), p.8.
- Garnezy, N., & Rutter, M.(1983). Stressor of childhood. I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on children(pp.43–84), New York:McGraw–Hill.
- Gray, M., & Hayman, L., L.(1987). Assessing stress in children: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5), 316–326.
- Heisel, J. S. Ream, S. Raitz, R., Rappart, M. &Coddington, R. D.(1983).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 contributing factors in the disease of children, The Journal of Pediatrics, 83(1), 119–123.
- Lazarus, R. S., Averill, J. R., & Opton, E. M. Jr. (1974). The psychology of coping : Issues of research and assessment. In G.V. Coelho, D. A. Hamberg, & Adams(Eds). Coping and adaptation(pp.249–315). New York : Basic Books.
-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cation Co.
- Lazarus, R.S., & Launier, R.(1978). Stress 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A. Pervin & M.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nal Psychology, New York : Plenum Press, pp.287–327.
- Miller, N. E.(1979). A perspectives on the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on disease and health. In S. Levine & H. Ursin(Eds), Coping and Health (NATO conference series III, pp. 323–353), New York : Plenum.
- Rutter, M.(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4), 323–356.
- Ryan N.M.(1989). Stress–coping strategies identified from school age children’s perspectiv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11–122.
- Ryan–Wenger, N. M.(1990).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choolage’s Coping Strategies Inventory, Nursing Research, 39(6), 344–349.
- Seeley, M.(1976). The stress of life(2nd ed.), New York : McGraw–Hill.
- Silver, R.L., & Wortman, C.B.(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Garber & M.E.P. Seligman(Eds), Human helplessness : Theory and application, Academic Press :New York, 279–340.
- Spivack, G., Platt, J. J., & Shure M. B.(1976).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San Francisco, Calif: Josey–Bass.
- Walker, C.L., Wells, L., Heiney, S.P., Hymobich, D.P., & Weekes, D.P.(1993). Nursing Management of Psychosocial Care Needs, In Foley G. V., Fochtman D., & Mooney K.H.(Eds), Nursing Care of the Child with Cancer, W.B. Saunders, 397–434.

- Abstract -

Key concept : Coping, School-age Children,  
Q-methodology

**A Study on Types of Coping in  
School-Age Children :  
A Q-methodological Approach**

*Jung, Yun\* · Cho, Kyoul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Q-sorting and to develop a typology of coping to stress in school-age children through the use of Q-methodology.

For the study, Q-statements are selected from the literature and interviews of 30 Children, A total number 153 statement were collected and 31 Q-samples were finally selected.

A P-sample of 76 was selected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Each of respondents were given 31 coping strategies questionnaire and set of 31 statements with cartoon on each of cards and sorted them according to the 9-point scale. The result of

the Q-sorting by each subject were coded and analyzed using the QUANAL PC and SPSS PC+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core each item of questionnaire and score of sorted statement. Therefore, school-age children was able to Q-sorting(forced normal distribution).

Also, the four types of coping were named as follows :

- Type I (n=35) : To search for the dynamic behaviors
- Type II (n=12) : To search for the intellectual behaviors
- Type III (n=22) : To search for emotional-spiritual behaviors
- Type IV (n= 7) : To search for the self-abuse behaviors

Through the study, the implication for teachers, parents and school nurses is that there is needed to guide and to support adaptive coping behaviors. Also, it is recommended that the application of Q-methodology for study of children's subjective concepts like stress and coping.

〈부록 1〉 Q-표본 분류카드의 예



\*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yungHee University